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와 韓國經濟

高 南 旭

目 次

- | | |
|------------------------|--------------------|
| I. 序 言 | IV. 新國際經濟秩序 理論의 實體 |
| II. 新國際經濟秩序의 主唱背景 | V. 新國際經濟秩序와 韓國經濟政策 |
| III. 新國際經濟秩序의 要求와 그 反響 | VI. 結 語 |

I. 序 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既存國際經濟秩序는 世界經濟의 與件變化에 따라 急激한 變모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經濟의 開放經濟政策과 關聯하여 특히 注目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先進工業國들에 의한 新保護貿易主義의 대두와 第三世界開發途上國에 의한 新國際經濟秩序(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이하에서는 NIEO라 略稱하기로함)의 主唱이다.

本稿의 目的은 1974年부터 後發開發途上國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NIEO에 關하여 그 主要內容을 서술하고 그 基本性格을 分析하며 그 장래를 展望하고 아울러 새로운 국제적인 국면에 접어든 韓國의 經濟政策의 方向에 대한 示唆을 구하고자 한다.

NIEO의 本質에 대하여는 本論에서 다시 詳論할 것이지만 우선 問題의 提起를 위하여 그 性格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NIEO는 開發途上國들이 先進諸國에 대하여 國際間的 所得再分配을 위한 措置를 取할 것과 既存의 國際經濟秩序가 오로지 先進諸國의 利益만을 위하여 運營되어온데 대하여 開發途上國들의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위하여 그들의 參與下에 經濟秩序를 再編成할 것을 要求하는 一聯의 提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政治的 의미에서 新生獨立國이며 經濟的 의미에서 開發途上國인 第三世界는 자기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現實 世界秩序에 反旗를 들면서 자기들의 民主的 參與가 前提되는 新國際經濟秩序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 經濟의 自主的 成長에 초점을 맞추어 NIEO를 설명하고 NIEO의 本質과 메커니즘을 分析한 뒤 이 秩序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有利하게 우리의 內延的 成長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條件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NIEO의 再編成過程에서 韓國經濟와 經濟政策에 대하여 어떤 示唆를 주는가에 대하여 論及하고자 한다. 本論文을 構成함에 있어서 그것의 內容은 조순교수의 「新國際經濟秩序」(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1980.12), 및 安承喆著 「國際經濟 理論과 政策」에서 많은 부분을 참조 또는 再引用 하였다.

II. 新國際經濟秩序의 主唱背景

1. 既存經濟秩序의 機能弱化

1970年代의 國際經濟秩序變化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움직임의 하나는 開發途上國들에 의한 既存秩序에 대한 강력한 도전과 새로운 國際經濟秩序創設의 主唱이다. 여기에서 國際經濟秩序라 함은 國家間 經濟去來의 支配原理, 經濟關係의 樣態, 國際經濟機構의 組織과 運用基準 등 國家間 經濟去來를 지배하는 制度和 規範을 칭한다.

1960年代의 後半期까지 先進諸國들이 이룩한 經濟的 成果로서는 驚異的인 成長, 安定的인 物價水準, 高率의 貯蓄과 投資, 持續的인 所得增加, 完全雇傭의 달성, 國際貿易의 급속한 伸長등 經濟實績은 異例的인 것이었다.

이러한 長期的 번영은 IMF와 GATT를 中心으로 하는 브레튼·우드體制下에서 이룩되었다. 이러한 體制에 대해서는 開發途上國들은 처음부터 이 體制의 運營에 參與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오로지 이 體制가 마련한 競技規則을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發言權도 行使할 수가 없었다.

先進諸國들이 이 體制下에서만 그들의 經濟的 번영을 이룩할 수가 있다고 믿어 왔고 이러한 秩序가 國濟經濟秩序의 原理인 것처럼 여겨졌었다.

그러나 60年代 후반부터 國際經濟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美國의 國際收支赤字에 의하여 國際流動性은 줄곧 增加의 一路를 걸었다. 國際的 인플레이션은 7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모하였다. 1973년의 石油價格의 上昇은 產油國을 富國으로 만든 反面 長期的 번영을 구가하던 經濟가 이제 長期的 沈滯局面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混迷를 거듭함에 따라 既存經濟秩序도 崩壞에 直面하게 된 것이다. 基軸通貨의 平價切

下를 包含하는 빈번한 換率의 조정으로도 先進諸國의 國際收支의 均衡이 回復되기 어렵게 되자 드디어 國際적으로 變動換率의 制度가 채택되어 IMF는 그 存在意義의 大半을 상실하게 되었다. 先進諸國은 保護主義政策 및 輸入制限措置를 채택하여 GATT의 기본정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70年代의 스태크플레이션이 전세계에 만연하여 브레튼·우드의 經濟體制度 이제 그 機能이 弱화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IMF와 GATT를 中心으로 하는 既存經濟秩序는 어떤 形態로든지 大幅的인 改編이 不可避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었다. 더구나 資源保有國의 國有化權利와 資源카르텔形成의 正當性을 國際적으로 확인받는데 성공하고서 부터 이 「新國際經濟秩序」는 先先進國間 經濟關係의 再定立을 위한 論議의 焦點이 되었다.

2. 後發開途國의 開發成果의 不振

戰後의 新生獨立國들이 대다수인 開發途上國들이 政治的으로는 先進工業國들과 대등한 位置에 놓이게 되었으나 經濟的으로는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그 격차가 점점 深化되어 감에 따라 그 隔差를 줄이기 위한 共同努力의 일환으로 이미 유엔決議를 통하여 1960年代를 「第1次유엔開發 10年代」, 이어서 1970年代를 「第2次開發 10年代」로 각각 선포하고 開發途上國들의 最低目標成長率의 設定과 이를 위한 先進國의 對開發途上國 支援基準線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決議와 共同努力에도 불구하고 開發途上國들의 經濟成長은 대체로 不振하였다.

大戰後에 탄생한 新生國들은 工業化를 통한 經濟開發을 위하여 輸入代替産業의 育成을 통하여 開發을 시도하였으나 大部分의 開發途上國들은 커다란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輸出主導型 成長으로 經濟開發에 착수하여 韓國, 대만등을 포함하는 몇개의 開發途上國들은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으나 大部分의 開發途上國들은 輸出에도 많은 애로에 부딪치어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輸出마저 뜻대로 되지않아 이번에는 技術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이 技術不足을 극복하기 위하여 先進諸國에 直接投資 및 合作投資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開發途上國들이 바라던 技術導入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開發途上國들은 輸入代替로부터 輸出로 그리고 直接投資 및 合作投資로 開發을 시도해 보았으나 先先進國間的 隔差는 더욱 深化되었다. 開發途上國들의 主張에 의하면 既存經濟秩序가 처음부터 先進國經濟의 與件과 利益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國際經濟秩序가 構造的으로 改編됨이 없이는 앞으로도 開發途上國의 經濟的 地位는 크게 改善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先先進國間的 相互依存性 深化

위에서 설명한 開發途上國들은 이러한 先先進國間的 經濟的 隔差를 좁힐 수 있는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는 적어도 첫째, 經濟資源과 技術을 先進國으로 부터 開途國으로 대폭 移轉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先後進國間의 經濟開發을 위하여 相互依存關係 및 協力體制가 必要하게 되었다. 유럽과 日本은 工業原料의 大部分을 開途國에 依存하게 되었고 資源의 大國인 美國도 이제는 主要原料의 상당부분을 開途國에 依存하게 되었다. 先後進國間의 關係는 單純한 富國 對 貧國의 側面에서가 아니라 相互依存의 側面에서 나아가서는 世界經濟의 長期的 存立이라는 觀點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변하게 되었다. 둘째로 經濟成長 段階上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이 國家間 對等關係만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國際經濟關係規約를 大幅修正하여 開途國들에게는 一般的 義務條項으로 부터의 免除特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세계 既存國際經濟機構들이 資金出捐規模등의 기준에 의하여 先進富國主導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改正하여 重要決定事項에 대한 開途國들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게끔 開途國들의 決定權擴大를 制度化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 相互依存性의 增大는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서 票數로 開途國들의 發言權행사를 크게 강화시키는 데 決定的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73年 10月の 石油價格의 引上을 통한 產油國의 成功은 開途國의 結束의 힘을 세계에 과시한 결과가 되었으며 世界經濟에서의 資源保有開途國들의 經濟的 比重이 크게 올라갔으며 中共의 유엔 進出과 더불어 第三世界 그룹으로서의 開途國들의 政治的地位가 또한 크게 浮上되었음을 배경으로 하여 1974年 5月の 第6次 유엔特別總會가 「新國際經濟秩序의 確立에 관한 宣言과 行動綱領」(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을 채택하여 上記한 開途國要求事項의 大綱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國際關係의 변천속에서 先後進國間에 보다 平等한 富와 所得의 分配를 期하고 그들이 經濟發展을 돕기위하여 能動的인 參與下에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Ⅲ. 新國際經濟秩序의 要求와 그 反響

1. 援助의 強化에 관한 提案

開途國들이 先進諸國에 바라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원조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의 第1次 유엔開發 10년에 있어서의 目標은 援助國 GNP의 1%였으나 第2次開發 10年 동안에는 0.7%로 下向調整되었으며 金額으로도 1965年中 69億 달러가 77년에는 211億 달러로 不變價格으로 보아 12年동안에 35%가 增加한 94億 달러에 불과한 것이었다. 1970年代中 援助實績은 목표와는 달리 더욱 저조하였으며 對GNP 比率도 근

래들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援助가 얼마큼 필요하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必要額의 算定基準으로서는 흔히 受援國의 經濟成長目標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키 위해 얼마만큼의 外國資本이 필요한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이 방식에 따르면 1人當 GNP의 成長率이 4%일 경우 1982년에 公共援助의 總額이 410億달러로 계산된다. 基本需要充足理論에 따르면 물론 다른 額數가 나온다.

近年에 들어 援助強化는 오히려 援助減少의 경향을 많이 띠고 있으며 GNP의 0.7%를 달성할 가능성도 희박할 뿐 아니라 NIEO에 대한 第三世界의 動機나 先進國內의 經濟事情이 뒤엉켜 오히려 援助無用論이나 援助有害論마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先進國가운데서도 經濟援助가 과연 開途國들의 經濟發展에 연결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학자도 늘고 있는가 하면 開途國內에서도 經濟援助가 오히려 受援國의 종속적 관계를 영속화 한다는 從屬理論까지 대두되고 있기까지 한다. 援助國에서는 멘체스터學派의 保守主義者가 주장하고 있고 受援國에서는 新마르크스派의 急進主義者들이 經濟關係斷切까지 부르짖고 있다.

여하튼 원조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결코 더 늘지 않을 展望이다.

2. 外債負擔의 輕減에 관한 提案

開途國들의 對外債務償還問題는 最近의 資源價格波動과 세계적인 經濟不況에 따른 國際收支惡化로 인하여 開途國들의 負債償還能力이 일반적으로 급격히 低下되었음을 감안하여 資本供與國들인 先進國들이 적어도 그들의 公共借款部分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연장과 利率引下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開途國債務에 대한 劃一的인 負擔輕減은 이로 인하여 經濟協力을 이미 많이 하여준 供與國들에게만 追加的인 協力負擔이 더 集中되어지고 또한 資本協力을 이미 많이 받아들인 國家들일수록 그 受惠者가 더 커지는 不公平性이 있다고 既資本供與國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는바 開途國들의 債務償還猶豫要請에 대한 先進國들의 協助問題는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形態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一次產品의 價格保障에 관한 提案

開途國들의 輸出品中 原油를 除外하면 一次產品의 輸出比重이 아직도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목을 要한다 하겠다. 이러한 商品의 對工產品交易條件이 每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 騰落의 幅도 매우 크다. 그래서 開途國들은 1970年 UNCTAD 회의에서 國際備蓄協定을 맺고 60億달러의 共同基金을 설치하여 이러한 不利益을 除去하려 노력한바 있다.

그러나 一次產品의 協定價格設定에 관하여는 20 세기 들어 이미 50 여개의 協定이 체결된 바 있으나 이들중 어느것 하나 성공한 예가 없고 價格의 安定이나 추세적 下落 역시 방지하지 못하였음을 보면 이 주장 또한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先進國이 바라는 1次產品의 價格安定은 開途國의 要求와 달리 1次產品의 價格을 일방적으로 引上함을 방지하고 그 價格安定으로 부터 一次產品市場을 둘러싸고 있는 不確實性을 除去하여 一次產品의 원활한 供給을 保障하고 나아가서는 一次產品의 價格의 引上으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要因을 除去하는 등의 效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先後進國間에 그들의 實利를 추구하는 水準에서 모든 價格協定이 이룩되기에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특히 一次產品의 價格에 관해서는 開途國이 바라는 대로 되리라고는 期待하기 어려운 것으로 展望된다.

4. 貿易特惠에 관한 提案

「貿易을 통한 援助」는 輸出先導의 開發戰略을 추진하는 開途國으로서의 바람직한 것이다. 先進國들이 關稅를 引下하고 非關稅 장벽을 완화하며 開途國의 輸出品에 特惠를 제공하여 준다면 開途國들의 輸出은 대단히 伸張될 것이다.

지금까지 先進諸國은 GATT의 互惠의 貿易自由化를 지켜오다가 近來에는 오히려 自國市場을 막아 開途國의 自律의 輸出規制를 강화하고 있는 實情이다. 既存 國際秩序 속에서 多者間貿易協商(MTN)을 벌여 關稅를 내리기는 하고 있으나 NIEO의 中心이 되는 特惠制度의 채택은 아직도 棼 制限의이다. 그간 「特惠에 관한 一般制度」(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는 棼 高무적이었지만 이 制度는 당초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制約條件에 의하여 그 適用의 範圍가 制限되고 있다. ① 어떤 特定國은 經濟的 또는 政治的 理由로 말미암아 受惠國으로부터 除外된다. ② 어떤 特定品目は 特惠關稅의 適用으로부터 制限된다. ③ GSP가 適用되는 品目別 輸入限度額이 定해져 있다. 이와같은 制限으로 말미암아 GSP가 開途國의 輸出增大에 寄與할 수 있는 幅은 겨우 開途國輸出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推算된다. 先進國은 겉으로는 特惠關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나 制度의 運營이나 行政節次面에서 制約을 가함으로써 實質的으로 開途國의 輸出을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다.

5. SDR擴大, 技術導入增大 및 多國籍企業規制에 관한 提案

開途國은 1972~74年の 20個國 委員會를 통하여 各國에 새로 配定되는 SDR에 대하여는 從來처럼 IMF의 欸타에 比例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國際收支의 慢性的 逆調와 開發資金의 不足으로 곤난을 겪고 있는 開途國에 보다 많이 配定될 수 있도록 改定하자는 提案을

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基蕃通貨國의 입장에서 西獨은 인플레이의 危險을 내세워 계속 반대하고 있다.

비록 開途國에 보다 많이 配定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SDR 配定으로 開途國에 귀속될 利益은 微小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開途國으로 돌아가는 利益이란 SDR을引出하였을 때의 비교적 낮은 利子率과 國際金融市場에서 借入하였을 때의 비교적 높은 利子率의 利差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結論적으로 「SDR - 링크」는 實現되기는 매우 어렵고 또 實現된다고 하더라도 開途國에 대한 利益은 극히 微小할 것이다.

開途國의 經濟開發努力의 過程에서 중요한 것은 技術이다. 그러나 外資導入에 便乘하여 또 直接投資・合作投資의 形態로 또는 技術導入契約의 形態로 開途國으로 들어오는 先進國의 技術은 쉽게 導入國에 擴散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先進國의 技術供給자들이 技術의 順調로운 傳播를 막는 法律上 내지 商行爲上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이리하여 開途國은 이러한 제반 장치를 제거해 주도록 강력히 要求하고 있다.

그 骨子는 約 40 가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行爲를 「制限的 商行爲」(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로 指定하여 이에 관한 規制方法을 技術導入國의 內國法으로 制定하여 그 水準을 強制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先進諸國은 「制限的 商行爲」의 種類를 줄이고 이에 대한 規制는 技術導入國의 內國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強制가 아니라 當事者國間의 合意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될 것을 主張하고 있다. 사실 開途國의 主張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規範이 制定된다 해도 例外規定이 많아 有名無實하게 될 可能性이 크다.

多國籍企業의 活動規制도 마찬가지로 實効성이 의문시 된다. 開途國은 多國籍企業의 활동을 막기 위한 國際間的 行動規範을 바라고 있다. 要是 技術導入의 경우든 多國籍企業의 경우든 導入하고 안하고는 開途國에 달려 있는 것이다. 國內法規에 의하여 統制가 不可能하다면 國際間的 「規範」의 制定으로도 統制가 不可能할 것이다.

6. 資源移轉問題에 관한 提案

先先進國間的 所得隔差縮小를 위한 資源移轉과 관련하여 先進國들이 그들의 GNP의 1% 이상을 對開途國 經濟協力에 供與한다는 유엔決議와 公約의 實現을 開途國들이 촉구하고 또 한 그 援助의 사용에 있어서도 供與國의 간섭없이 受援國이 그것을 自由로 사용할 수 있도록 援助提供에 따른 條件附隨가 止揚되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그런데 先進國들의 입장에서는 全體先進國들의 對開途國經濟協력이 1975년에 이미 GNP 1% 目標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開途國들이 그것을 認定하려 하지 않거나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더 높은 水準의 目標提示만 계속 要求하고 있다고 반박

하고 있으며 또한 供與援助의 條件附隨에 대하여는 同一國內에서도 財政支援을 할 경우에는 政策調和와 資金의 效率性提高를 위하여 資金用途에 대한 事前協議가 이루어지는 것인바, 對外的인 協助供與에 있어서 最少한의 條件附隨는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7. 國際規則上的 例外的 待遇에 관한 提案

國際協約과 國際機構의 運用規則 및 節次(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는 原則的으로 參加國間的 對等關係와 相互主義를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그 規則과 義務는 모든 參加國에게 同一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開途國들은 先進國들에 比하여 經濟構造와 成長段階面에서 落後되어 經濟的 能力에 있어서 差等이 있으므로 開途國들에게는 一般的 義務로 부터의 免除등 特別例外待遇가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開途國을 위한 GATT 協定文의 新章設定과 같이 모든 國際協約에 있어서 이러한 例外規定이 明示的으로 設定되어야 하며 한편 IMF나 IBRD 등의 國際機構의 決定權行使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出捐金基準의 投票權을 止揚하고 1國1票原則을 적용함으로써 主要國際經濟關係의 決定이 先進國主導에서 벗어나 開途國의 參與와 영향력이 制度的으로 強化保障되어질 것을 開途國들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國際規則에 있어서 例外條項이 많아지거나 例外對象이 擴大되면 例外가 오히려 原則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例外惠澤을 받지 못하는 參加國들은 그 規則을 쉽게 違背하려는 경향이 있게 됨으로써 國際規則의 實効性이 低下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國際機構나 國際企業에서의 1國1票原則의 強要는 數的으로 劣勢인 先進國들이 「多數의 橫暴」(Tyranny of the majority)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러한 討議機構에의 參加拒否나 그 機構 바깥에서의 協商을 촉진시킴으로써 그러한 國際討議機構가 無力하고 無能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新國際經濟秩序」의 實現을 위한 開途國들의 主要提案의 要旨와 그에 대한 先進國側의 反響을 살펴 보았는데 그 大部分의 경우에 있어서 先進國들이 一方的 양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現時點에서 그러한 提案들이 先進國들에 의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個別提案에 따라서는 妥協과 折衷의 여지가 상당히 있으므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形成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先進國間的 協議에 있어서 上記한 問題들이 그 主軸을 이루게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IV. 新國際經濟秩序理論의 實體

이상 開途國의 要求와 NIEO의 內容을 설명하고 이 모두가 그리 쉽게 實現되기 어려운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克服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NIEO의 本質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NIEO가 具體적으로 提案되기 시작한 1974년부터 이제 6년이 지났다.

이 期間동안 開途國의 一方的 공세에 대하여 先進國은 그저 臨機應變으로 이에 對應하였을 뿐, NIEO가 立脚하는 理論의 本質에 관하여 냉정한 分析과 評價를 행할 겨를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世界經濟秩序는 결국 先後進國間的 合意에 의하여 確立될 수 밖에 없고, 그 合意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主張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올바른 把握이 있어야 한다. 이 理論의 淵源을 보면 프리비쉬(Raul Prebisch)의 有名한 理論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國際貿易의 結果로 나오는 利益은 항상 工產品을 輸出하는 中心國에 有利하게, 原料 등의 一次產品을 輸出하는 邊境國에 不利하게 分配되는 偏倚性(Bias)을 지니고 있다는 理論이다.

환언하면 開途國의 輸出의 大宗을 이루는 工業原料 및 그밖의 一次產品은 對工產品 交易條件이 계속 惡化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開途國은 一次產品輸出에 特化하면 할수록 不利해지고 貿易의 利益은 대부분 先進國에 의하여 거두어진다. 따라서 開途國의 經濟開發의 基準은 一次產品의 輸出을 위한 特화가 아니라 輸入代替產業의 育成에 있다. 이것이 프리비쉬의 開發理論의 骨子라 할 수 있다.

一次產品의 對工產品 交易條件은 계속 惡化하였는가? 1951年 이후로 에너지, 食料品 및 工業原料 등의 相對價格은 추세적으로 下落하였고 石油波動이 있는 1973년까지 이들의 價格은 매우 저렴하였던 것은 否認할 수가 없다. 1951~1972年 사이에 西方 유럽의 先進國의 交易條件은 1951年의 85에서 1958년에는 95로 改善되었다가 1972년에는 다시 105로 大幅으로 改善되었다. 20年 동안에 交易條件이 24%나 大幅 改善되었다는 것은 西歐의 所得水準을 올리는 데 있어 크나 큰 役割을 한 것이다.

先後進國間的 經濟交流에 있어서는 先進國에 對하여 相對적으로 開途國이 不利하다는 觀念이 NIEO의 理論의 基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開途國은 이러한 NIEO의 理論의 本質을 기반으로 하여 先進國과의 經濟關係에 대하여 두 가지의 經濟行爲를 擇할 수 있다.

하나는 開途國이 先進國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資本去來를 最少限으로 줄이고 自國內의 經濟開發을 통하여 對外依存度を 축소하는 길을 택하고 다른 하나는 貿易과 資本去來를 계속하되 開途國에 대하여 不利한 結果를 초래하는 經濟的 要因을 除去하고 새로운 秩序를 바탕으로 하는 經濟關係를 택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前者的 選擇에 있어서는 從屬理論(dependency theory)을 내세워 中心國과의 經濟斷切(de-linking)을 선언하고 自立的으로 經濟發展을 도모해야 하며 결코 買辦資本이나 外國資本家와 關係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NIEO는 開途國의 經濟交流에 있어 貿易 및 資本面에서 항상 不利한 處지에 있으므로 이것을 是正하기 위하여 開途國들의 幅 넓은 參與下에 새로운 經濟秩序를 確立하는데 先進國들은 同意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NIEO의 基本哲學은 비록 基本的으로는 穩健한 것이 사실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立脚하는 經濟理論은 역시 既存의 理論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첫째 IMF와 GATT를 中心으로 하는 既存의 體制에서는 國際貿易은 모든 나라에 無差別의이고 互惠의인 原則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近來에 와서는 先進國들이 GATT의 規定을 스스로 無視하는 여러가지 輸入制限措置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原則은 互惠·雙務的인 原則下에 있어서의 自由貿易을 標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既存의 秩序에서는 換率 및 國際收支에 관한 한 換率의 調整이나 國內의 財政金融政策을 通하여 自動的으로 調整될 수 있다는 理論에 立脚하고 있다. 즉 國際收支는 當事國이 各己 競技規律(Rule of game)을 준수하기만 하면 거의 自動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既存體制는 價格의 機能을 通하여 資源을 效率的으로 配分시킨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市場의 원활한 기능을 막는 政府의 介入이나 干涉등은 原則的으로 바람직 못한 것으로 既存理論은 믿고 있다.

이러한 經濟原理는 弱者인 開途國에게 不利하기 마련이며 經濟的 强者인 先進諸國만이 利益의 더 많은 부분을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NIEO는 貿易에 있어서의 特惠, 國際收支逆調에 있어서의 國際金融擴大, 市場構造의 非效率性에 있어서의 多國間協定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NIEO의 생각도 先進諸國과의 經濟去來는 基本的으로 利益보다는 손해가 더 많으며 빅셀(Kunt Wicksell)이나 뮌르달(Gunnar Myrdal)이 말한 바와 같이 對內的 均열(domestic disintegration)과 不均衡(disequilibrium)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貿易은 交易惡化를 낳고 多國籍企業은 國內俸給體系 등을 破壞하며 援助는 經濟隷屬을 과생하는 등 國際經濟와의 유대를 깊이하면 할수록 開途國에 不利해진다는 것이다. 外債는 늘기 마련이고 SDR 링크는 큰 도움이 안되며 頭腦流出은 갈수록 심해지고 食糧援助는 近代農業을 망치며 技術移轉은 교묘한 메커니즘 때문에 依存과 從屬을 더해갈 뿐이라는 것이다.

문제의식을 成長이 아니라 發展이란 곳으로 옮겨 보면 發展論의 위기와 從屬의 문제를 더욱 느끼게 되고 開途國의 經濟構造를 깊숙이 살펴보면 볼수록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世界資本蓄積과 低開發의 構造, 從屬의 類型을 보면 經濟發展이 既存經濟秩序 속에서 더욱 惡化되기 마련임을 알 수 있고 自主的 工業化, 都市偏向과 農村貧困, 所得의 不平等한 分配와 기타 對內的 문제점을 보면 볼수록 先進國과의 不均衡發展의 法則을 고치지 않는한 새로운 開發理論을 찾아 國際經濟秩序를 새롭게 定立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

게 된다는 것이다. 不均衡發展의 法則은 貿易에서 天然資源, 人的資源, 金融資源의 配分에서 또 요즘은 技術移轉이나 多國籍企業의 世界戰略에서 더욱 現實化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NIEO는 결국 既存秩序와 完全히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開途國은 先進國에 대하여 既存秩序의 革命的인 代替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開途國의 參與下에 그 大幅的인 改編을 要求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新國際經濟秩序와 韓國經濟政策

NIEO와 關聯하여 韓國經濟는 어떤 政策으로 이에 臨하여야 할 것인가?

韓國經濟는 어떠한 形態로든 國際經濟와 經濟關係를 단절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우리에게 有利하게 作用하도록 對內外適應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現今의 國際經濟社會는 強한 相互依存性에 의하여 깊은 關係로 맺어져 있다.

모든 原料와 原資材, 機械와 生産施設, 資本과 技術, 製品의 販路, 심지어 食糧과 난방연료에 이르기까지 깊게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韓國經濟는 NIEO와 이에 관련된 國民經濟의 動向에 관하여 더 以上 無關心으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經濟規模가 擴大되면 될수록 對外依存度가 심화될 것이며 NIEO에 關聯된 문제의 추세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國民經濟의 順坦한 運行을 위하여 보다 能動的으로 應分의 役割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NIEO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韓國經濟의 現況과 앞으로의 方向에 관계되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韓國經濟는 여러가지 面에서 NIEO의 中心國家들과는 다른 立場에 있다. 政治理念이나 地政學的 立場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물론 經濟發展段階나 構造에 있어서도 援助나 GSP, 一次產品, SDR 등에 연연해 있을 필요가 없고 NIEO의 主張中 先進國의 輸入規制완화, 資本流出促進, 產業構造改編, 技術輸出, 多國籍企業規制등에 더 많은 關心을 가지면서 對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經濟는 既存 經濟秩序속에서 外形上 量的 成長을 거듭하였고 이 점은 NIEO 內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日本이나 대만과 다른 점은 既存秩序속에서 外延的 成長과 內延的 成長을 同時에 기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特히 內延的 成長을 결여했었다는 데 우리經濟의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經濟는 先進工業國과 다른 開途國 및 後進未開發國과는 달리 新興工業化 推進國家로서 그 構造도 아프리카나 東南亞 및 南美諸國과는 다르며 꼭 從屬的이라거나 過多依存的 이라고 볼 수는 없는 經濟이다. 그간 社會間接資本도 充實히 쌓아 올렸고 貯蓄갯도 무리한 成長計

劃을 세우지 않는 한 상당히 좁혀졌다 할 수 있다. 貿易갭도 마찬가지로 이 모두 物價와 함께 1977~78年頃に 均衡點을 이룬 적이 없었던게 아니다. 主穀도 한때 輸出된 적이 있고 지금 電子, 機械, 강철, 선박, 石油化學製品 등 重化學製品이 商品形式으로 또 플랜트 直·合作投資形式으로 海外에 輸出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 중 海外建設輸出은 人力輸出과 함께 우리의 큰 比較優位이며 달라 박스이기 까지 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1977~78年度の 過剩投資때문에 景氣가 침체되고 失業者가 늘며 稼動率이 떨어지고 物價가 오를때 더구나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 등 經常收支가 惡化되어 外債가 늘어나고 있을 때는 資本과 技術, 市場에 있어 對外依存度가 커지지 않을 수 없고 잘못하다간 從屬의 언더바닥에 떨어질 可能性도 없는 바 아니다.

기술만해도 우리의 現水準은 工場設計, 建立, 시운전, 가동운영, 개선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맡아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核技術은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도 合作投資會社에서는 原料購買와 製品購買, 價格設定, 機械設備導入과 高度精密技術의 운용을 外國人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不平等 메커니즘을 通해 利益配分이 우리에게 不利하게 된 事例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外債를 상환하기 위한 外債調達은 企業運用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우리 經濟는 지금 自立과 依存의 기로에 서 있고 이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NIEO에 協助 國際經濟秩序를 우리에게 有利하게 作用하도록 온갖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NIEO의 장래는 不確實하다 하겠다. 이러한 동안 國際經濟는 계속 不確實性속에서 激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資源의 價格 展望도 불투명하고 不確實하다. 이와같은 不確實性에 直面한 政策에는 伸縮性이 있어야 한다.

VI. 結 語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既存國際經濟秩序는 世界經濟의 與件變化에 따라 急激한 변모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經濟의 國際進出과 關聯하여 特히 注目되고 있는 사실은 先進國들에 대한 開途國들이 主唱하는 「新國際經濟秩序」가 問題되고 있다.

國際間 經濟交流는 주어진 國際經濟制度和 루울下에서 行하여지는 것이므로 國際通貨制度 貿易秩序, 經濟機構 등의 外廊制度가 얼마나 妥當하고 効率的으로 機能하는가도 世界經濟의 순조로운 成長과 貿易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最近에 대두되고 있는 先進國들의 保護主義傾向이 앞으로 어떻게 進展되며 또한 現在 第3世界國家들의 既存國際秩序에 대한 강력한 挑戰과 新秩序形成의 要求가 앞으로 어느정도로 實現되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들 問題가 앞으로의 世界經濟의 成長速度와 貿易패턴의 形成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앞에서 NIEO의 主唱背景과 그것의 內容 및 本質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先進國側의 反響을 살펴 보았는데 그 大部分의 경우에 있어서 先進國들의 一方的 양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現時點에서 그러한 提案들이 先進國들에 의하여 그대로 받아 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形成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先後進國間의 協議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그 主軸을 이루게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開途國들은 NIEO에 대하여 지나친 期待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本論에서 고찰한바 있는 援助의 強化, 外債負擔의 輕減, 一次產品綜合計劃, SDR, GSP 등 어느 것을 보아도 開途國이 크게 期待될 만한 것은 없다.

NIEO는 開途國의 開發努力에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開途國自體의 自立的 開發意志를 代身할 수는 없는 것이다.

NIEO가 完成 되었을 때에는 그 많은 部分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既存秩序를 改造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NIEO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既存秩序의 상당부분은 變形된 채 存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經濟는 지금 自立과 依存의 기로에 서 있고 이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 또한 먼저 國內經濟를 잘 運用하여 內延的 成長을 可能토록 NIEO에 協助하고 이를 우리에게 有利하게 展開되도록 하여야 하며 새 秩序는 그러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Korean Economy

Nam-wook Ko

The exist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has been making a sudden change according to the given condition world economy since the nineteen-sixties set in. In connection with Korean invasion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new protectionism by industrially advanced nations and 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by the third world developing nations have attracted a good deal of public attention.

Before comments on the contents and characters of NIEO, the second paragraph of this study deals with NIEO's background; the malfunction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poor progress in economic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deepening mutual dependence between developed nations and underdeveloped nations. The third paragraph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economic effect of NIEO. The fourth paragraph examines the true nature of NIEO. The fifth paragraph proposes a view on what lesson the discussion on NIEO gives to Korean economy and economic policy.